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번 한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2:1-7).

“이 때에...” 이때란 로마제국이 형성된 그때를 말합니다. 본래 로마제국은 여러 장군들이 통치했으며 점차적으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한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드디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양아버지 그의 삼촌의 이름 ‘씨저(Caesar)’ 라는 이름을 채택하였으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그가 권력을 장악했을때 로마 상원이 준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잡고 로마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했을때 상원은 그에게 칭호를 주기로 결정했으며 처음엔 로마의 왕 으로 부를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후에 그들이 “우리는 당신을 로마의 독제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신의 배경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나왔으며 그는 그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씨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권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사람에게 세금을 바치게 하려함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로마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영을 내려서 온세상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게 할수 있을때까지 점차적으로 권력을 장악했던것입니다. 그에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영을 내릴수 있고 온세상은 그영에 따라야합니다. 로마는 온세상을 무력으로 복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제니스 사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제니스는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언제나 로마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원의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16년간이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기에 아주 알맞은 시기이네요” 라고 하시겠죠.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평화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로마가 너무나 강력한 통치를 했기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로마의 노예였고 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저가 얻기를 바라던것이었고, 이제 그는 영을 내렸습니다.

로마 정부가 실시한 이 인구조사에 관한 기록들이 애굽에서 발견된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인구조사를 매 14년마다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 14년마다 실시한 인구조사의 기록이 애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마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지역에 있으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않은 나사렛이라 불리우는 작은 도시에 젊은 부부가 있었고 그들은 두사람이 다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온세상에 세금을 바치도록 호적하라는 씨저 아우구스투스의 영이 내렸을때 그들은 씨저 아우구스투스에게 복종하여 인구조사에 등록하려고 그들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응하기위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기록들이 애굽에서 발견 되었으며 그것들은 성경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임신기간중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시기는 아주 괴로운 때입니다. 인체내에 여러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며 신체적인 반응이나 역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이 사람이 영을 내렸기 때문에 그의 임신을 늦출수도없는 마리아와 요셉은 이 긴 여행을 하지않을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기때문에 그것은 긴여행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친구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가 내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70 마일을 여행 해야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2:4-7).

흥미롭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 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세상을 찾아 오셨을때 여인숙에 방이 없었습니다. 내집작에 그것은 마치 그의 생애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수님에게 장소 제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제외한 다른 모든것을 위한 장소와 시간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것에는 시간과 장소를 바칩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일반사회의 바깥에 방치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좀더 심각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관점에서 보는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다 봅시다. 한걸음 물러서서 좀더 넓은 시야로 볼때 우리가 볼수있는것은 흥미롭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700년전에 그리고 이 젊은 부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기전에 아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사건의 700년전에 한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딤크 5:2). 그 선지자는 메시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될것이라고 예언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은 본문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요셉은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일이 이루어졌으며 로마의 보좌에 앉아있는 작은 사람이 모든일을 조종하는것이 아니라 그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것입니다. 그가 소원했던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얻은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진짜 주권을 행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나사렛에서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부부는 만삭이된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긴 여행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나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가게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줄을 당기기 시작하셨고 씨저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상이 호적하도록 하여 세금을 내도록 하라” 하고 지시하였습니다. 씨저의 영에 “예, 폐하” 라고 대답했을때 그는 자신이 온세상을 다스리는줄로 알았으나 실제로는 700 여년전에 선언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의 반응일뿐이었습니다. 아기가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에 가도록 하기 위함 이었던 것입니다.

심한 고독이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만아들을 낳았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분명히아기를 낳는데 도움을 얻지못했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서 강보에 싸고 돌보는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 자신도 16세나 17세밖에 되지않는데 짐승을 보관하는 마굿간의 구유에서 아기를 출생한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돌아보사 속량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 참으로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2:8).

한가지 지적할점 - 이것은 예수께서 12월 25일에 탄생하실수 없었다는것이며 겨울철에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지내기엔 너무나 춥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농신제 라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휴일에서 빌려온것이며 그것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보다 더욱 세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12월 25일의 가짜 탄생을 얼마나 더 지속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2:9).

그 목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서 희생으로 드려질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전에서 희생으로 드릴 양들을 충분히 기르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목동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성전에서 희생으로 드려질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죄 를 지고갈 어린양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마다 들판에 나가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을때 주의 영광이 저들을 두루 비쳤고 그들은 두려워 하였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2:10).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과 큰 기쁨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2:11-15).

주의 사자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강한 느낌일뿐입니다. 그는 비밀을 지킬수 없기때문에 아기의 탄생을 위한 준비를 많이 해야하는것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임무는 끝났고 아기도 안전하게 탄생하여 거기에서 강보에 싸여 있으므로 그의 일은 끝났습니다. 그 아기는 첫울음을 터뜨렸고 구유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의 모든 임무는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무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속량하시려고 인간을 찾아 오시기위해 인간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오, 모든 사람이 알아야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모든 불이 꺼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일대에 촛불도 다 꺼져있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모든 정경을 관찰할때 그는 예레살렘을 향하여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잘 됐다. 그는 거기에 가서 비로소 깨어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봐, 애들아,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물론, 그리고 난다음에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놀라운 광경들입니다. 결코 싫증이 날수없는장면들이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2:16-21).

사람들은 아들의 출생후 팔일이 지난 할례일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권리인지라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팔일에 할례를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허용되는 희귀한 경우중의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21-22).

여인이 아들을 낳았으면 40일간의 결례의 날을 거쳐야 합니다. 만일 그가 딸을 낳았다면 80일의 결례의 날을 거쳐야 합니다. 여자를 낳은것에 대한 일종의 벌을 받는셈 입니다. 이제40일의 결례의 날이 지났습니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22b).

40일이 지난후 그들은 하나님께 결례를 바쳐야 했습니다. 양 이나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난하면 양 대신에 두 반구(산 비둘기) 를 드릴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2:23).

실제로 하나님이 첫째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의 장자를 대속할 처지가 되었을때 하나님은 드디어 레위 족속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임되어야할 자기들의 장자 를 구속하는 속전을 레위족속에게 치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장자는 데려왔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함이더라 (2:24).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다는것을 나타냅니다. 내게 흥미있는것은 예수께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가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어떠한것인지 알아십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어떻게 지불할까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것 저것 필요한것들을 어디서 구할까 걱정하는것도 잘 아십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것 때문에 걱정 하는 우리의 입장을 알아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25-26).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노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2:27-32).

여기 있는 예언에서 빛은 이스라엘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세상, 즉 이방인들에게도 비추는 빛입니다.

요셉과 어머니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2:33-35).

그리고 그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가 어느날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것을 보며 경험하게될 고뇌와 아픔을 준비시키는데였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2:36).

소녀의 경수가 시작되고나서 7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결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결혼하여 줄곧 같은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처녀로서 7년이 지난후 결혼하여 그 남편과 같이 살았다는것입니다. 그는 지금 84세 입니다.

과부 된지 팔십 사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2:37).

경건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한가지는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 두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2:38-42).

아마 그가 처음으로 갈수 있는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열두살이 되어 그의 바-밧수바 (bar mitzvah – 유대인들의 12세 생일 축하) 행사를 할 시간을 갖게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2:43a).

그들은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경건한 부부였고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2:43b).

수 백명씩 여행을 같이 합니다. 통상 여자들은 느리기 때문에 먼저 떠나고 남자들은 늦게 출발합니다. 언제나 저녁때까지는 그들을 따라가도록 합니다. 저녁에 캠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사렛에서 온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모아 밤에 캠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따라가서 “예수는 어디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친척들에게 그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친구들과 함께 있는줄로 알았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2:44-45).

이제 여기에 12살 먹은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에 “오, 아빠와 엄마가 가고 없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2:46a).

그들이 되돌아가 보았으나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찾았을때에 그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2:46-48).

주의: “네 아버지와 내가” 는 요셉을 가리키며 그는 재빨리 그의 어머니의 말을 고쳤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2:49).

이 시점에서 그는 요셉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가 존재하는 목적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가 그걸 마땅히 해야하는건 알아.”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할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있기때문입니다. “오, 해야되는건 알아, 정말 해야돼.”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반드시 해야돼” 라고 말할땐 들으십시오. 이제 당신이 실생활의 중심에 가까워 지고 있기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것,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할일이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에 관여 해야한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50-52).

첫 두장에서 배경을 알았고 3 장에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라고 배우는 기회를 가질때 하나님께서 축복 하시고
말씀의 지식과 이해가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